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3

조선전쟁과 《유엔군》



조선전쟁과
《유엔군》

조선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6(2017)년

차 례

1. 덜레스의 긴급서울행각

국제무대에서 이미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작한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요람기에 압살하여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조선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여기에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을 투입하는것도 유엔의 간판밑에 실행하였다.

트루맨은 １９４８년말부터 미국땅을 휩쓴 파국적인 경제공황의 위기와 함께 극도로 악화된 공화당과의 심각한 정치적갈등과 모순에서 헤여나오기 위하여 모대기면서 그 출로를 암중모색하고있었다.

１９５０년 １１월에 진행하게 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는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공화당패거리들은 트루맨의 민주당행정부가 무능하여 중국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기어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날뛰였다. 이런 판에 조선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여 남조선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면 민주당패거리들이 국회를 차지하기는커녕 다음번에는 대통령자리까지도 잃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명줄을 유지하기 위하여 트루맨으로서는

긴급히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도서들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조선전쟁은 １９４８년 가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공황이 １９４９년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져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해 １５％나 감소되고 독점자본의 리윤은 １６％나 감소된 사실과 무관계한것이 아니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직면하고있는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되였다.》, 《전후 첫 불경기로 미국은 타격을 받았다. 가장 엄중한것은 랭전이 열기를 받기 시작한것이였다. 트루맨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공산주의에 대하여 너그럽다느니, 중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떼웠다느니 하는 비난을 받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트루맨이 고안해낸것이 바로 공화당패거리들중에서도 강경보수파의 우두머리인 상원 의원 죤 포스터 덜레스를 행정부의 요직에 끌어당겨 선두에 세워놓고 공화당을 달래면서 조선반도를 시급히 먹어보려는 계책이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트루맨은 １９５０년 ４월초에 덜레스에게 미국무성 대외정책담당 최고고문이라는 자리를 선사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덜레스앞에서 제일먼저 꼬리친것이 남조

선괴뢰대사 장면이였다. １９５０년 ４월 １０일 장면은 덜레스에게 환심을 사려고 추파를 보내였다.

《저는 당신이 최근에 미국정부의 대외정책고문으로 임명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현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우리는 사실상 공산주의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촉각이 예민한 언론계는 미제가 공화국북반부를 시급히 침략하려고 시도하고있으며 그로하여 지금까지 세계여론을 기만해오던 《미군철수, 군사원조의 종결》이라는 말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전쟁을 시사하는 의미심장한 보도를 하여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１９５０년 ４월 ２１일부 미국의 정기간행물 《유에쓰 뉴스 앤드 월드 레포트》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미국은 중국이 갈데로 가도록 놔둔것처럼 남조선을 로씨야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

지난 시기 워싱톤의 일부 사람들이 권고하던 미군철수, 원조종결에 대한 문제가 더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요점은 미국이 아시아대륙을 먹기 위한 마지

막발판이 남조선이라는것이 지금에 와서 현실화되였다는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돕기 위하여 남아있다는 립장을 명백히 하는 경우에 로씨야가 세계대전을 바라지 않는 이상 남한을 침공하지는 않을것이다.

로씨야의 견지에서는 남조선을 로씨야의 잠수함과 비행기들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신속대응기지로 간주할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견해를 무마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

그 싸움이 얼마나 지속되겠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 시기부터 트루맨행정부는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１９５０년 ４월 １３일 트루맨은 미국무성 극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순회대사였던 필립 씨. 제섶을 내세워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대아시아정책을 그럴듯하게 윤색하여 소리방송으로 시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１９５０년 ４월 １３일 미국방장관 루이스 죤슨도 저들의 《강대성》을 떠들면서 이전까지는 비밀리에 추진해오던 괴뢰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는 숨기지 않고 더

욱 로골적으로 제창하였다.

버지니아종합대학에서의 강연에 앞서 죤슨국방장관은 《이 나라(미국)는 우리에게 도전하려는 그 누구보다 현명성의 견지에서나 정신적 및 완력적견지에서 질적으로 강력하기때문에 싸움에서 이길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은 언제나 해외의 지지자(추종자)들의 편에 서있을것이며 있을수 있는 적들로부터 그들을 효과적으로 호상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가능한껏 충분한 범위의 군사적, 경제적원조를 제공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５.３０선거》결과는 미제와 리승만역도가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더 험악하였다. 결과 새로운 《국회》가 가동을 시작하면 리승만의 파쑈독재체계가 붕괴되고 나아가서 미제가 북침전면전쟁도발을 더는 계획대로 추진시키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궁지에 빠진 미제와 괴뢰들에게는 긴급대책이 필요하였다. 그 긴급대책이란 절정에 달한 《국회》의 리승만축출분위기를 시급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전쟁도발을 가능한껏 최대로 앞당기는것이였다. 트루맨은 덜레스를 자기의 특사로 긴급히 서울에 파견할것을 결심하였다.

덜레스의 긴급서울행각을 앞두고 리승만은 서울에 체류하고있던 괴뢰대사 장면을 워싱톤으로 급파하였다.

６월 １０일 워싱톤에 도착하여 덜레스를 만난 다음 장면은 １９５０년 ６월 １４일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의 극비서신을 리승만에게 보내였다.

《덜레스씨의 이번 방문은 극동과 관련한 국무성의 결심채택에서 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이번 방문이 국무성의 극동정책에서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덜레스씨는 …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을것이며 한국을 뒤받침하여줄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금 준비하고있다고 확신성있게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것이라는데 대하여 확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 미국도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덜레스의 방문은 공격개시신호를 주고 공격개시와 함께 미해공군이 지원하여줄것을 최고위급에서 리승만에게 담보해주기 위한것이였다.》

１９５０년 ６월 １４일 워싱톤을 떠난 덜레스는 도꾜에서 맥아더를 만난 다음 １７일 서울

에 도착하였다.

그 다음날인 1950년 6월 18일 덜레스는 무쵸와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 그리고 괴뢰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괴뢰들을 휘동하여 38° 선일대에 대한 시찰에 나섰다. 덜레스는 38° 선일대의 무력배치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상태, 지어 이 일대에 배치된 괴뢰경찰들의 준비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한 다음 《북벌》작전계획을 현지에서 검토하였다. 이날 38° 선일대를 싸다니면서 덜레스는 괴뢰들에게 북침열기를 한껏 불어넣었다.

당시 덜레스의 38° 선일대에 대한 시찰의 목적에 대하여 미국의 도서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이 중대한 시기에 대하여 맥아더의 정보부장은 〈전쟁이 더욱 긴박해지고있는 때에 동양방문중이던 죤 포스터 덜레스는 남조선국방장관과 동행하여 38° 선상에 이르렀다. 리승만군대의 많은 부분은 이미 실질적으로 38° 선에 배치되여있었다.〉고 했다》, 《덜레스는 38° 선을 시찰할 때 전쟁준비를 강화할것을 강조하면서 〈당신들이 힘을 과시할 때는 그리 멀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때 보도사진이 찍혀졌는데 덜레스가 북조선방향들에 표식을 한 지도

를 펼쳐놓고 허리를 굽히면서 보루너머로 저쪽 세계를 건너다보는 모습이 찍혔다.》

３８°선일대를 시찰하면서《북벌》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덜레스는 6월 １８일 저녁 리승만에게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 다음 2주일간만 견지할데 대한 트루맨의 최종적인 지령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도서들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그러나 그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으로 되여있던 리승만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출판보도기관이 그것을 무시했기때문인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면담이 취소되였던가? 면담은 분명히 １８일에 진행되였다. 그런데 전혀 보도되지 않은것은 그것이 절대비밀에 붙혀졌기때문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리승만은 비밀을 고수할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행동계획은 리승만이 혼자서는 실행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였다. …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낸바 있는 전 국군중장 최덕신의 말에 의하면 덜레스는 리승만에게 공산주의와 싸울 각오가 되여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언제나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확언하였다고 한다. … 그러나 그는 리승만에게 한국이 먼저 공격받았다는것을 세계가 인식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라 행동계획을 짜야 한다는데 대하여 권고하였다.》,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 …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했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하면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

다음날인 1950년 6월 19일 오전 덜레스는 서울의 덕수궁에서 《유엔조선위원단》과 극비밀담을 진행하였다. 덜레스는 여기에 《유엔조선위원단》에 가담하였던 중국 장개석의 졸개와 오스트랄리아, 엘 쌀바도르, 뛰르끼예 등의 나라들에서 파견된 친미분자들과 이미 6월초에 워싱톤이 보낸 극비지령을 받고 그 무슨 《북의 남침》징후를 날조하려고 6월 9일부터 38°선일대를 돌아치던 《유엔조선위원단》의 《군사감시기구》인 《야전감시단》의 가담자까지 불러들여 참가시켰다. 덜레스는 이날의 극비밀담에서 38°선일대에 대한 《야전감시단》의 《자료》수집정형을 료해하고 며칠후에 《충격적사건》이 터진 다음 《유엔조선위원단》이 신속히 수행

해야 할 워싱톤의 극비지령을 전달하였다.

6월 19일 오후 덜레스는 리승만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중간파《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회 개회식》에 나타나 《당신들은 외롭지 않다. 당신들이 인간의 자유에 관한 〈위대한 계획〉에서 자기의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하는 한 당신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것이다.》라고 떠벌였다.

트루맨의 특사로서의 사명을 끌마치고 서울을 떠나면서 덜레스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도발에 괴뢰들이 주저없이 나서도록 내몰기 위해 리승만에게는 《나는 펼쳐지고있는 〈위대한 극적인 사변〉에서 귀국이 놀게 될 결정적인 역할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라는 비밀서신을 보냈다.

덜레스의 긴급서울행각에 대하여 오스트랄리아의 저명한 문필활동가 윌프레드 버체드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덜레스의 방문은 공격개시를 알리고 … 미국공해군의 원조가 있을것이라는것을 최고수준에서 보증하기 위해서였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한편 덜레스의 서울파견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트루맨은 미국방장관 죤슨과 미합동참모본

부 의장 브래들리를 미극동군총사령부로 급파하였다.

1950년 6월 18일에 도꾜에 도착한 죤슨과 브래들리는 미극동군총사령부에서 맥아더와 함께 급변한 조선반도의 정세에 침략전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밀담을 18일에 이어 19일 오전까지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에 동원될 미제침략군의 대규모적인 열병식을 거행하였다.

서울행각을 마치고 6월 21일 도꾜에 날아든 덜레스는 21일과 22일 미극동군총사령부에서 극비로 진행된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작전회의에 참가하였다. 죤슨과 브래들리, 맥아더와 덜레스가 참가한 이 비밀작전회의에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도발에서 괴뢰군의 역할과 전쟁개시후 미극동군 륙해공군부대들의 행동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후 도꾜의 어느 한 시국강연장에 나타난 덜레스에게 일본보수당소속의 한 사람이 조선정세에 대하여 묻자 덜레스는 《2～3일 기다렸다가 보라.》라는 대답을 주었다.

미제가 몰아온 침략전쟁의 불구름이 2～3일내에 38°선일대에서 타번질것이라는것을 시사한 덜레스의 이 말은 결코 실언이 아니였다.

2. 《유엔조선위원단》의 사명

１９４８년 ４월 ２일에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유엔의 모자를 쓰고 감행할데 대하여 결정한 미제는 이 계책을 실현하려고 유엔에서 １９４８년 １２월에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작하였으며 １９４９년 １０월에는 공화국북반부의 《남침설》을 날조하기 위하여 《유엔조선위원단》에 군사감시기구로 《야전감시단》까지 설치하였다.

１９５０년 １월 중순경에 국방장관실에서 로버츠는 신성모에게 《물론 이북에 대한 진공은 우리가 먼저 착수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상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짓을 할 구실을 가져야 할것이니 이에 립각하여 유엔조선위원단의 유엔본부에 대한 보고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물론 유엔조선위원단은 미국에 유리한 보고를 할것이다. 그러나 당신들도 이런 점에 주의를 하여서 유엔조선위원단의 호의를 얻는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실현의 도구로 조작된 《유엔조선위원단》과 그 소속의 《야전감시단》, 《서기국》은 당시 미제에게 절대적으로 추종하

였던 오스트랄리아와 중국의 장개석, 엘 쌀바도르, 프랑스, 인디아, 필리핀, 뛰르끼예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었다.

１９５０년 ６월초 북침전쟁도발을 더는 미룰수 없게 된 미제는 《유엔조선위원단》에 《야전감시단》이 시급히 현지에 도착하여 자기 사명을 다할데 대한 긴급지령을 내리였다.

원래《야전감시단》은 오스트랄리아와 카나다, 필리핀, 엘 쌀바도르의 군사관계자 ７명으로 구성되였는데 미제의 긴급지령을 받고 １９５０년 ６월초까지 서울에 도착한것은 오스트랄리아에서 파견된 랜킨과 피츠뿐이였다.

이렇게 되여 《유엔조선위원단》은 랜킨과 피츠, 《서기국》 부국장 코티스 그리고 괴뢰통역원들로 《야전감시단》을 긴급히 구성한 다음 덜레스가 서울에 오기 전까지 ３８°선일대에 나가 북침전쟁에 미제가 《합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야전감시단》은 덜레스가 서울에 도착한 ６월 １７일 ３８°선일대에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６월 １９일 덜레스에게 바쳤으나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호된 추궁을 받고 또다시 워싱톤의 긴급지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6월 21일 다시 옹진반도로 떠났다.

6월 23일 옹진반도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온 《야전감시단》은 상전의 강박에 못이겨 미군사고문단이 통솔하는 괴뢰군이 《북벌》을 단행할 준비가 되여있지 않았다는 거짓내용의 《보고서》를 장황하게 꾸며놓았다.《야전감시단》은 이 《보고서》에 은파산, 송악산과 같은 고지들이 엄연하게 북위 38°선 북쪽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고지라고 하면서 북의 군대가 《강점》한듯이 날조하였다. 그러나 《야전감시단》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분계선북쪽의 움직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으나 38°선일대의 전지역에서 그 어떤 긴급한 변화를 보여주는 북조선군측의 비정상적인 활동은 포착되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히 강조되여있다. 결국 이 시기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서》라는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그처럼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한 《북벌》준비를 가리우기 위한 날조품이였다.

바로 이 문서장이 미제가 북침전쟁에 《합법적》으로 개입하려고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사이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제82호, 제83호를 날조할 때 북이 남을 《공격》하였다는 그 무슨 근거라도 있는듯이 기만하면서 요란하게 내흔들던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서》－《３８°선지역에 대한 유엔조선위원단 야전감시단의 현지조사보고서》이다. 사실이 《보고서》에는 그 누구의 《남침》에 대하여 말할만 한 그 어떤 자그마한 요소도 전혀 없다. 이러한 관계로 하여 미제는 이 《보고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하고있다.

《야전감시단》의 기만적인 활동에 대하여 미국의 한 도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세계기구（유엔）의 기발밑에 진행되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그 명의만을 빌리는 유엔（야전감시단）이 도착하였다.

… 처음으로 두사람의 군사사찰원이 남조선에 도착한것은 ５월 중순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오스트랄리아사람이였는데 항공대대장인 랜킨과 륙군소좌 피츠였다. 현지에서는 일정도 조직되여있지 않았고 동료사찰원도 상급장교도 없었기때문에 두사람은 일시 태평양의 빠리인 도꾜에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비행기좌석표를 얻지 못하였다. … 도꾜에 가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그들이 사찰려행을 하도록 미지의 인물들로부터 시사받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랜킨과 피츠는 ３８°선을 따라 려행할 권한을 받았다.

려행을 끝내고 ６월 ２３일 서울에 도착하였

다. 이튿날 그들은 보고서를 썼다.

그 이튿날 오전 4시경 남북조선사이에 전면 전쟁이 일어났다. 보고서가 29일까지 안보리사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것은 의미심장한것이다.

북조선이 침략자라는 비난을 지지하기 위하여 인용하게 될 이 사찰단의 보고서는 실제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주지 못하고있었다.》

트루맨의 긴급지령을 받고 《유엔조선위원단》이 1950년 6월에 갑자기 진행한 38°선일대에서의 그 무슨 《자료》수집을 위한 《야전감시》와 그 정형에 대한《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그《보고서》를 가공하여《유엔조선위원단》의《보고서》로 꾸민 다음 6월 26일 유엔에 전보로 보낸 사실, 6월 29일에 미제침략군의 캠프 하까다기지에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들은 철두철미 그 누구의 《남침설》을 억지로 날조하기 위하여 《유엔조선위원단》의 모모한자들이 상전의 구미에 맞게 《보고서》를 꾸미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덜레스의 서울행각일정에 맞추어 《야전감시단》이 움직였으며 6월 23일에 《야전감시》일정을 끝내고 24일에는《보고서》를 완성하여 유엔에 《제소》하려고 시도하였다는것은

명백히 《유엔조선위원단》이 6월 25일에 미제가 감행하려고 하는 북침전면전쟁도발의 내막을 알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며 《야전감시단》의 《보고서》를 워싱톤의 의도대로 기어이 완성해보려고 이 문제를 캠프 하까다기지에까지 끌고가서 재《검토》하였다는것은 《유엔조선위원단》이야말로 미제의 전형적인 침략의 도구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전의 의도대로 《보고서》를 완벽하게 날조하려던 《유엔조선위원단》의 모략책동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당시 《유엔조선위원단》이 미제의 추종자들로 구성되였다는데 대하여 미국의 한 도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유엔조선위원단과 그 사무국의 성원들은 동 위원단이 보다 훌륭한 눈가림역할을 할뿐아니라 북조선에 대한 무장공격계획의 실행에 대하여도 협조한다는것을 처음부터 전제로 하고 선발되였던것이다.》

이처럼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전쟁을 도발한 즉시 《유엔조선위원단》을 내세워 이미전부터 날조하여온 《북의 남침설》을 유엔에 《제소》하도록 한 다음 《합법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려고 온갖 모략책동을 다 감행하였다.

3. 미국에 필요했던 《유엔군》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침략전쟁의 진상을 외곡하고 저들의 공개적인 무력간섭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우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을 조작해냈다.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하여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우며 저들의 무력간섭과 함께 《유엔군》을 조작하여 전쟁에 투입시키기 위한 모략을 꾸미였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미국대통령 트루맨에게 전달되자 트루맨은 그 상세한 내용을 묻지도 않고 즉시 유엔에 《제소》할것을 지시하였다. 그것은 초기에 미제의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모든것이 제대로 진행된다는것을 트루맨자신이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제는 유엔담당 미국무차관보 히카슨으로 하여금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 리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유엔상임주재 미국대표 그로쓰는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무성관리들에 의하여 개작된 이른바 북조선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보고》를 읽어주면서 《미국정부의 긴급요청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즉각소집》을 바란다고 강요하였다.

이후부터 모든 일은 계획에 따라 재빨리 진척되여갔다. 론평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정부의 이러한 가속도적인 《솜씨》는 미국력사에 일찌기 류례없는 일이였다고 한다.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였다.

미국에 추종하던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 리는 일부 나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제기한 사기적문건들을 유일한 《법적근거》로 하여 회의를 소집하였고 처음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죄판결》하려고 서둘렀다.

회의에서 미국대표 그로쓰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공화국북반부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① 《적대행동의 조속한 중지》와 《무력을 38° 선까지 즉시 철수시킬것을 북조선에 요구》하며 ② 《유엔조선위원단》이 《북조선군의 철수》를 감시하고 본 《결의안》집행정형을 안전보장리사회에 계속 통보하며 ③ 모든 성원국들이 이 《결의안》집행에서 유엔에 온갖 방조를

제공하며 북조선당국에 방조를 주는것을 삼가할데 대한 《결의초안》을 내놓았다.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회의에서는 《북으로부터의 무장공격》이라는 허위를 날조하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자》로 규정함으로써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미국측《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2호로서 강압통과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이 유엔무대를 통하여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음흉한 모략이였다는것은 미국도서가《6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결의안이 조급하게 유엔긴급회의에 제출되였을 때 미국대표단은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여 북조선이 유엔을 무시하고 행동하였다고 모인 대표들을 설득하였다.》, 《… 미국정부가 먼저 침략행위를 감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엔의 행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 침략행위를 은폐하려고 기도하였다는것이다.》고 밝힌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미제는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전쟁에 들이밀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결의》도 날조해내였다.

1950년 6월 27일 미제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 오

스틴은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을 《유엔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면서 《무장공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미제가 내놓은 남조선에 대한 유엔성원국들의《원조》란 곧 미제의 대대적인 무력간섭과 추종국들의 조선전쟁참전이였다.

회의에서 미제의《제안》에 대한 반대(이전 유고슬라비아)와 기권(인디아, 에짚트)이 있었고 조선대표를 회의에 초청하여 교섭을 진행하자는 정당한 의견이 제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유엔가맹국》의 무장간섭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로서 채택되였다.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미군의 개입과 관련하여 6월 25일부 《결의》를 인용하면서 《안보리사회는 유엔의 전체 가맹국에 이 결의의 리행에 즈음하여 모든 원조를 줄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나는 미국 해공군에 한국정부군에 원호와 지지를 줄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와 트루

맨의 궤변은 마치도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이 6월 27일의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된것으로 묘사되여있었다.

그러나 《결의》 제83호는 미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행동을 진행한 다음에 채택되였다.

1950년 6월 27일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3호가 채택되기 전인 6월 25일에 미제는 일본에 있던 미 제5공군의 제68, 제339전투비행대와 제25전투폭격기비행대를 조선전선에 163회 출격시켰고 6월 26일 낮부터는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 대한 맹폭격을 감행하였으며 같은 날 미 제7함대도 조선해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6월 27일부 《결의》로 조선전쟁에 미군의 대대적인 개입과 추종국들의 참전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미제는 조선에서 감행하는 미군의 군사행동을 유엔의 기발밑에 진행되는《유엔군》의 군사행동으로 은페하며 《유엔군사령부》의 간판밑에 조선전쟁을 국제화하고 추종국가군대들을 제놈들의 지휘밑에 두려는 목적에서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내세워 저들의 목적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는 놀음을 벌렸다.

《공동결의안》에는 《… 군사력 및 기타 원

조를 제공하는 모든 성원국들은 미국의 통솔하에 있는 련합사령부로 하여금 그러한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사용케 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여 있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제84호로 채택되였다. 《결의》제84호가 보여주는것처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군》을 조직한것이 아니라 다만 유엔성원국들이 《제공》하는 《무력》과 기타《원조》를 미국이 통솔하는 련합사령부가 사용하도록 권고한것이였다.

여기에는《유엔군》을 조직파견한다거나《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현조차도 없었다.

더우기 미제가 기초하였다고 떠들어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1950년 7월 17일부 《권고안》S/1 588에도 《유엔군》의 조직과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초기계획대로 저들의 침략행위를 유엔결의로 합법화하기 위하여 《련합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저들의 침략군을 《유엔군》이라고 우겨대면서 그 이튿날에는 제마음대로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유엔군사령관》을 겸임시키고 7월 25일에는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변신시켰으며(1957년 7월 5일 미제는 일

본 도꾜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다.

이와 같이 미제는 비법적으로 채택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에 빙자하여 조선전쟁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우고 저들이 조선에서 감행하는 침략전쟁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을 지니고 유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 것처럼 분식함으로써 조선침략전쟁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였다.

결국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하여 15개국인 영국, 프랑스, 타이, 네데를란드, 에티오피아, 꼴롬비아, 필리핀, 뛰르끼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카나다, 남아프리카, 룩셈부르그, 벨지끄, 그리스 등 추종국가무력까지 투입되게 되였다.

《유엔군》의 모자를 쓴 추종국가군대들이 련이어 조선전선에 투입되였다.

1950. 8. 29. 영국 제27려단 1 693명
부산 상륙

1950. 9. 19. 필리핀륙군 제10대대전투단 1 200명 부산 상륙

1950. 10. 3. 타이륙군 보병대대전투단 선견대 조선 도착

1950. 10. 7. 타이륙군 보병대대전투단 주력 조선 도착

1950. 10. 12. 뛰르끼예륙군 1개 려단 선견대 조선 도착

1950. 10. 18. 뛰르끼예륙군 1개 려단 주력 5 190명 조선 도착

1950. 10. 24. 영국 제29려단 선견대 조선 도착

1950. 10. 24. 카나다 제25려단 선견대 조선 도착

1950. 10. 24. 네데를란드륙군 1개 대대 조선 도착

1950. 11. 남아프리카공군 1개 중대 조선 도착

1950. 12. 뉴질랜드포병 1개 대대 조선 도착

1950. 12. 프랑스륙군 1개 대대 조선 도착, 미2사 23련대 제3대대에 편입

1951. 1월초 카나다 제25려단 주력 조선 도착

1951. 1. 8. 그리스륙군 1개 대대 조선 도착

1951. 1. 31. 벨지끄륙군 1개 대대 조선 도착

1951. 2. 영국 제27려단이 영국 제28려단으로 개칭

1951. 5. 19. 카나다 제25려단이 미3사에 배속

1951. 7. 28. 영국 제28, 29려단과 함께 카나다 제25려단이 영1사단으로 편성

이외에도 전쟁기간 영국공군 1개 대대, 카나다해군구축대, 항공수송중대, 오스트랄리아륙군 1개 대대, 항공수송중대, 전투기중대, 타이공군 1개 전대, 그리스항공수송중대, 룩셈부르그륙군 1개 중대, 꼴롬비아륙군 1개 대대, 에티오피아륙군 1개 대대가 조선전선에 나타났다.

일본력사가 가미야 후지가 자기의 저서 《조선전쟁》에서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3개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은 사실상 미국의 결의안이였다.》고 정확히 평가한것처럼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하여 미제가 날조해낸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제82, 제83, 제84호들은 전적으로 미제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 《결의》들로서 그것은 완전한 비법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

행위로 된다.

미제가 날조해낸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의 부당성은 첫째로, 임의의 분쟁 또는 국제적알륵이나 혹은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임의의 사태 또는 사태의 계속이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할수 있는 가능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할수 있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34조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채택한 비법적인 《결의》라는데 있다.

유엔헌장 제34조의 기본취지는 한마디로 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파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6월 25일부 《결의》 제82호가 채택될 때 유엔사무총장앞으로 보내여온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는 모두 미제가 고안해냈거나 리승만괴뢰정부로부터 얻은 정보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이 보고들은 그들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확치 않은》 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도 없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

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25일부 《결의》 제82호의 채택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에는 《…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38° 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북조선에 침략의 딱지를 붙이려고 몹시 흥분한 미국의 제안을 강다짐으로 승인하고말았다.》고 지적되여있다.

6월 27일부 《결의》 제83호가 채택될 때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제의 지령에 따라 《유엔조선위원단》이 26일 하루아침사이에 조작해낸 4통의 보고(S/1 503, S/1 504, S/1 505, S/1 507)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제가 날조해낸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의 부당성은 둘째로,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유엔헌장 제32조와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들의 동의찬성을 포함하는 9개(당시는 7개국이였음) 리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제한 헌장 제27조 3항에 어긋나게 채택된 《결정》이라는데 있다.

당시 미제는 분쟁의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

괴뢰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여 성급하게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미제는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모든 《결의》들을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없이 비법적으로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당시 유엔의 대미추종경향과 상임리사국들의 거부권에 묶이운 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은 마비상태에 있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은 1950년 1월 3일부터 7월말까지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반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요구하면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보이코트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발동될수 있는 이전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거부권은 공백상태에 있게 되였다.

이러한 때에 미제는 조선에서 전면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다.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회의 불참가는 어떤 경우에도 표결에서 동의한것으로 해석될수 없다.

따라서 미제의 조종하에 날조된 유엔안전보

장리사회《결의》들은 유엔헌장에 규제된 5개 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된다.

하기에 당시 이전 쏘련 외무상 그로미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들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호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히였다.

《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1950)호는 5개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 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첫째로는 비법적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

미제가 날조해낸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의 부당성은 셋째로, 유엔의 무장력과 관련한 유엔헌장의 기본요구를 무시하고 채택된 《결정》이라는데 있다.

유엔헌장에는 유엔군의 조직편성과 그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유엔

군이 마땅히 유엔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인정되자면 유엔헌장의 규정에 철저히 부합되게 조직편성되고 그 활동에서도 헌장의 근본목적에 맞게 활동하여야 한다.

우선 미제는 《유엔군》의 조직편성에서 유엔헌장의 요구를 위반하였다.

유엔헌장 제43조는 유엔군의 조직과 파견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과 그에 기초하여 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을 제공하게 되여있는 나라사이의 특별협정으로 실현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15개 추종국가들은 헌장 제43조에 따르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였으며 더우기 미제의 무장간섭은 1950년 6월 27일의 해당 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이미 개시되였다.

또한《유엔군》의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도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엔군》의 모든 지휘권을 미제가 직접 장악하였다.

유엔군은 국제군으로서 그 어떤 한 국가에 의하여 지휘될수 없다.

유엔헌장 제46조와 제47조에 의하면 유엔군의 병력사용과 지휘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참모장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지원을 받아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 수행

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 참가한 미군과 15개 추종국가의 군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관할하에 있지도 않았으며 군사참모위원회는 운영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자체뿐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추종국가들도 인정한것이다.

실지로 《유엔군》은 유엔으로부터 그 어떤 지시도 받은것이 없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니라 미국정부가 임명하였으며 력대 사령관들도 미국군인들이였다.

이것은 미제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유엔군》이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는 상관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1994년 6월 24일부 서한에서 《1950년 7월 7일부 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1950)호 3항에 의하면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관할하의 보조기관으로서 통합사령부를 조직한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령부를 내올데 대하여 순수 권고만을 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권한하에 있다고 밝혔을뿐이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제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은 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90호에 의하여 그의 부당성이 더욱 증명되였다.

1951년 1월 3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전 쏘련이 리사회활동에 참가한 후 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정목록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미제가 상정시켰던 조선전쟁과 관련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침략에 대한 제소》라는 의정을 철회하는 결의 제90호를 채택하고 그후부터 조선문제를 토의하지 않은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자체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미제가 조작해낸 모든 《결의》들의 비법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 모든것으로 미루어볼 때 미제의 강압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들은 그 어떤 법률적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로 된다.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온 미제는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투입된 미제침략군무력을 《유엔군》의 허울속에 은폐해보려고 끈질기게 책동하였다.

1950년 7월 7일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 제84호와 7월 17일부 《권고안》 S/1588에 지적된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을 조직한 미제의 목적은 유엔헌장에 규제된것처럼 분쟁 또는 충돌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전에 저들이 이루지 못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강점야망을 단독으로 실현한다면 또다시 세계의 규탄과 항의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타산한데 있었다. 때문에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는데서 《국제련합군》이라는 외피를 쓰는것이 더 합리성을 띤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유엔결의를 확대해석하여 《유엔군》이라는 허울을 명색상 조작해냈던것이다.

실지로 미제가 조작해낸 《유엔군》의 병력구성을 보면 15개 추종국가병력은 다 합쳐야 겨우 륙군의 10%, 해군의 6.5%, 공군의 1.4%뿐이고 나머지 륙군의 90%, 해군의 93.5%, 공군의 98.6%를 차지한것은 미제침략군이였다.

시기별로 《유엔군》의 지상병력가운데서 15개 추종국가군대의 비률을 따져보면 1950년 9월말 현재 총 34만 9 300여명중에서 15개 추종국가군대는 2 890여명으로서 전체의 0.82%, 1951년 6월말 현재 총 55만 4 500여명중에서 추종국군대는 2만 8 000여명으로서 전체의 5.04

%, 1952년 6월말 현재 총 67만 8 000여명중에서 추종국군대는 3만 5 700여명으로서 전체의 5.26%, 1953년 7월말 현재 총 93만 2 500여명중에서 추종국군대는 3만 9 100여명으로서 전체의 4.19%였다.

《유엔군》의 해상병력을 따져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1950년 9월 중순 인천상륙작전시에 《유엔군》함선들로 무어진 제7련합기동함대에 망라된 함선수를 보면 영국 12척, 카나다 3척, 오스트랄리아 2척,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으로서 추종국함선수는 모두 20척이고 미7함대에 소속된 함선수는 226척이였다.(남조선함선 15척, 일본함선 50척은 제외)

이와 같이 《유엔군》의 병력구성실태를 보면 추종국군대는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명색뿐이였다. 이 극히 얼마 안되는 추종국군대는 미군을 《유엔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미제가 강제로 끌어들인 둘러리였다. 《유엔군》의 구성에서 거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있은것은 미제침략군이였다.

《유엔군》이 유엔과는 관계없이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미군무력을 유엔의 간판을 빌어 은페하기 위한 방패막이였다는것은 미국인

들자신이 시인하였으며 세계가 공인하였다.

1951년 5월 미국회청문회에서 맥아더는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대체로 명목상의것이였다. … 나는 유엔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다.》, 《만일 조선에 파견된 군대로부터 미국이 손을 떼면 나머지는 완전히 령으로 될것이다.》고 자인하였다.

조선전쟁말기에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1967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었던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미국도서 《비사 조선전쟁》은 《최후의 마무리는 유엔군부대를 맥아더의 지휘밑에 두면서도 맥아더를 유엔의 지휘밑에 두지 않게 하는것이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여 저들의 침략군을 《유엔군》으로 더는 가장할수 없는 사태가 조성되자 남조선주둔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이라는데 대하여 실토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남조선이 보통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미국장군과 참모를 가진 미국통제하의 기구였다.》라고 까밝혔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은 《남조선주둔 유엔군이 미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을 가져본적이 없으며 미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미군의 철갑모에 유엔의 딱지를 붙이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결의를 조작해냈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앞에 책임지지 않는 가짜사령부가 황당하게도 유엔군사령부로 불리우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군이야말로 《유엔군》이 아니라 전쟁전기간 공화국북반부를 강점하기 위하여 유엔의 허울을 뒤집어쓴 침략의 무리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결국 지난 3년간의 조선전쟁은 미제에 의하여 《유엔군》이라는 이름이 수치스럽게 람용당한 전쟁이였으며 백수십년의 침략전쟁력사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초대강국》의 군대와 갓 태여난 군대와의 대결전으로 되였다.

이에 대하여 1952년 12월 3일 유엔 제399차 전원회의에서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대표는 《3년째 되는 지금에도 유엔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의 기구로서 수치스럽게도

람용당하고있다. 3년째 되는 지금에도 유엔의 이름과 기발은 조선에서 미국간섭자들에 의하여 명예를 손상당하고있다.》고 단죄하였으며 조선전쟁시기 특파기자로 활동한바 있는 로씨야의 한 인사는 《쏘련-도이췰란드전쟁은 대군과 대군사이의 전쟁, 련합국과 동맹국사이의 전쟁이였다면 조선전쟁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과 엊그제 태여난 군대와의 전쟁, 련합국세력과 청소한 일개국사이의 보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였다고 까밝혔다.

바로 이러한 전쟁에서 미제는 전쟁 전기간 《유엔군》의 간판을 내걸고 평화와 안전을 수립하기 위한 립장에 선것이 아니라 리승만괴뢰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대조선정책에 맞게 공화국북반부를 지배하기 위한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으며 강점지역들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공화국북반부를 강점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지만 침략자의 《강대성》의 신화는 조선땅에서 산산이 깨지고말았으며 결국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무참히 패하고말았다.

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3

조선전쟁과 《유엔군》

편 집 : 김준혁

낸 곳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 주체106(2017)년 9월

ㄱ-7202243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

조선 · 평양
주체106(2017)년

ISBN 978-9946-0-1655-9

9 789946 016559